

삶을 가꾸는 과학과 기술

인류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과학기술이 바로
 농업과학기술이다. 생명의 근원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이 농업이
 아닌가. 그런데도 대학의 명칭에서
 「농과」의 이름이 슬며시 사라지듯
 농학은 그동안 푸대접을 받아왔다.
 과학영웅으로 지금 농촌은 달라지
 고 있다. 하루속히 농업의 경시풍조
 를 해소하고 농업과학기술 개발
 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朴 來 敬
 <북방농업연구소장>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과학기술이 곧 농
 업과학기술이다. 왜냐하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먹거리는 오직 농업과학기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근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다른 산업 못지 않은 농기업으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농업의 경시 풍조를 해
 소하고 적극 격려해야 할 것이다. 환경친
 화성 농업과 건강유지에 합리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과학 기술개발에 더욱 주
 력해야 할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고
 기술 발전이 생산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
 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필연적인 흐름으
 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국
 가, 사회, 학계 및 산업분야에 있어서 과
 학은 발전되고 있으나 기술은 낙후되어 생
 산과 풍요로움에 연결되지 못하고 가난과
 불안정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사
 례가 많다.

먹지않고 살 수 있는가

또한 과학은 학자들만의 전유물인 숭고
 한 것이며 기술은 기능공만이 다루는 천한
 것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사회풍조가 아직
 도 가시지 않고 있음은 과학과 기술의 발
 전을 밀접하게 연결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
 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즉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하
 고 있는 분야별 학회의 수가 엄청나게 많
 은 만큼 학문적 과학의 발전은 이루어졌는
 지 모르겠으나 기술개발면의 기여도가 충
 실했는 지는 한번 되돌아 볼 일이라고 생
 각한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으로서도 과학과 기

술을 별도의 관념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과
 학기술이란 밀접된 관념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학기술은 수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류의 삶을 행복하
 게,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이 있는가 하
 면 인류의 삶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파괴하
 는 과학기술도 얼마든지 있다. 지구상 인
 류의 대부분이 갈망하는 과학기술은 삶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이라고
 확신한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다양한 과학기술 중
 에서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즉 생명을 가
 꾸는 과학기술이 곧 농업과학기술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먹거리는 오직 농업과학기술에서 비롯되
 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학 또는 농업기술, 농업이란
 산업이 누구나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공급
 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켜 세우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농업을 경시하고 천
 대하고 뜨거운 감자처럼 취급하는 사회풍
 조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음은
 사실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도
 시에 집중하여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40대
 ~60대 이상의 대부분은 농촌 태생이었고
 농업 출신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고향인 농촌의 정서
 를 그리워하면서도 농가인구가 전국 인구
 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농사기술이 발
 전되지 못한 30년 이전의 노동위주의 고생
 스러웠던 과거만을 회상하기 때문에 이상
 과 같이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풍조가 생

겨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농업에 대한 경시풍조는 국가정책적인 면에서도 시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농업 우선으로 일관되었고 특히 농과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교 지원자 수의 감소 및 성적 수준의 하락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각급 학교는 삶을 가꾸는 과학기술 산업인 농학 및 농업의 명칭을 학교 명칭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용어로 바꾸게 되었다. 예를 들면 농과대학을 생명과학대학, 생명자원대학 또는 자연자원대학 등으로 개칭하고 있는데 결국은 삶을 가꾸는 과학기술이란 농학과 농업기술의 원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의 농업과학기술과 농촌산업은 30년 전의 노동위주의 고통스러웠던 농사가 아니라 농가의 능력에 따라 영농규모의 확대 및 기계화, 영농시설의 첨단 및 자동화 등 농기업적으로 과학적 두뇌와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다른 산업 못지않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가꾸는 즉 기본 먹거리를 공급하는 보람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으로 변하고 있음을 도시민도 함께 인식하여 농학 및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를 완전히 해소하고 농촌의 농업기술자와 농업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삶을 가꾸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농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해치거나 식품 공해 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환경친화성 농업기술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발전은 우

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두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 나라의 기후 및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과학적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환경친화성 농업기술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의 농업이 환경친화성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지역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해 줄 뿐 아니라 먹거리 이외에 자연 및 문화적인 공익적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실 예로서 우리나라 벼농사의 공익적 역할과 중요성을 보면 첫째 경제적 역할, 둘째 생태적 역할, 셋째 사회 문화적 역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성과 관계가 깊은 생태적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벼농사는 국토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의 평야지, 중간지 및 곡간지 등의 방방곡곡에는 수평형의 논배미가 층계형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 때에 홍수의 경감 또는 방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토양유실을 방지하여 귀중한 작토의 보전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벼농사 기간에 전국 논배미에 36억톤이 저수되어 춘천댐의 24배에 해당하는 자연댐의 기능을 수행하고 1백 58억톤의 막대한 지하저수를 함으로써 국토의 생명인 수자원을 함양하여 국토 생태계의 유지 및 활성화에 근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벼농사는 수질 및 공기의 정화 기능과 아울러 녹지공간을 넓혀 자연경관을 시원스럽고 좋게함으로써 인간생활과 밀접한 벼농사의 국토환경 및 생태

계 보전에도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벼농사의 기본 먹거리 확보 등 경제적 역할 이상으로 무한대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상은 삶을 가꾸는 농업으로서 벼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나 맥류, 콩, 잡곡류, 채소류, 과수류 등도 각 작물에 해당하는 먹거리 이외의 공익적 역할이 매우 크다.

경시풍조 씻고 격려를...

또한 삶을 가꾸는 농업으로써 그 나라의 주식이 된 작물은 국민의 건강을 대대손손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식품의 특성상 필수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주식인 쌀밥은 풍요로운 식생활의 주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쌀밥은 기본적으로 다른 어떠한 맛, 어떠한 먹거리와도 완벽하게 융합되는 미각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밥의 알맹이와 형상이 함께 한 밥맛으로써 특별한 맛이 없는 담백한 맛이라는 결정적인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쌀밥은 다른 어떠한 맛, 어떠한 먹거리와도 융합될 수 있으므로 반찬식단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이상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영양균형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식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같이 쌀밥 뿐만 아니라 콩 및 다른 먹거리도 우리 민족의 건강과 식성에 맞도록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삶을 가꾸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은 장래 우리 민족의 풍요롭고 건전한 생존번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①7